

NOVEMBER 2022

KOREA

marie claire

HER
VOICE

우리가 음악이라 말하는 것들

C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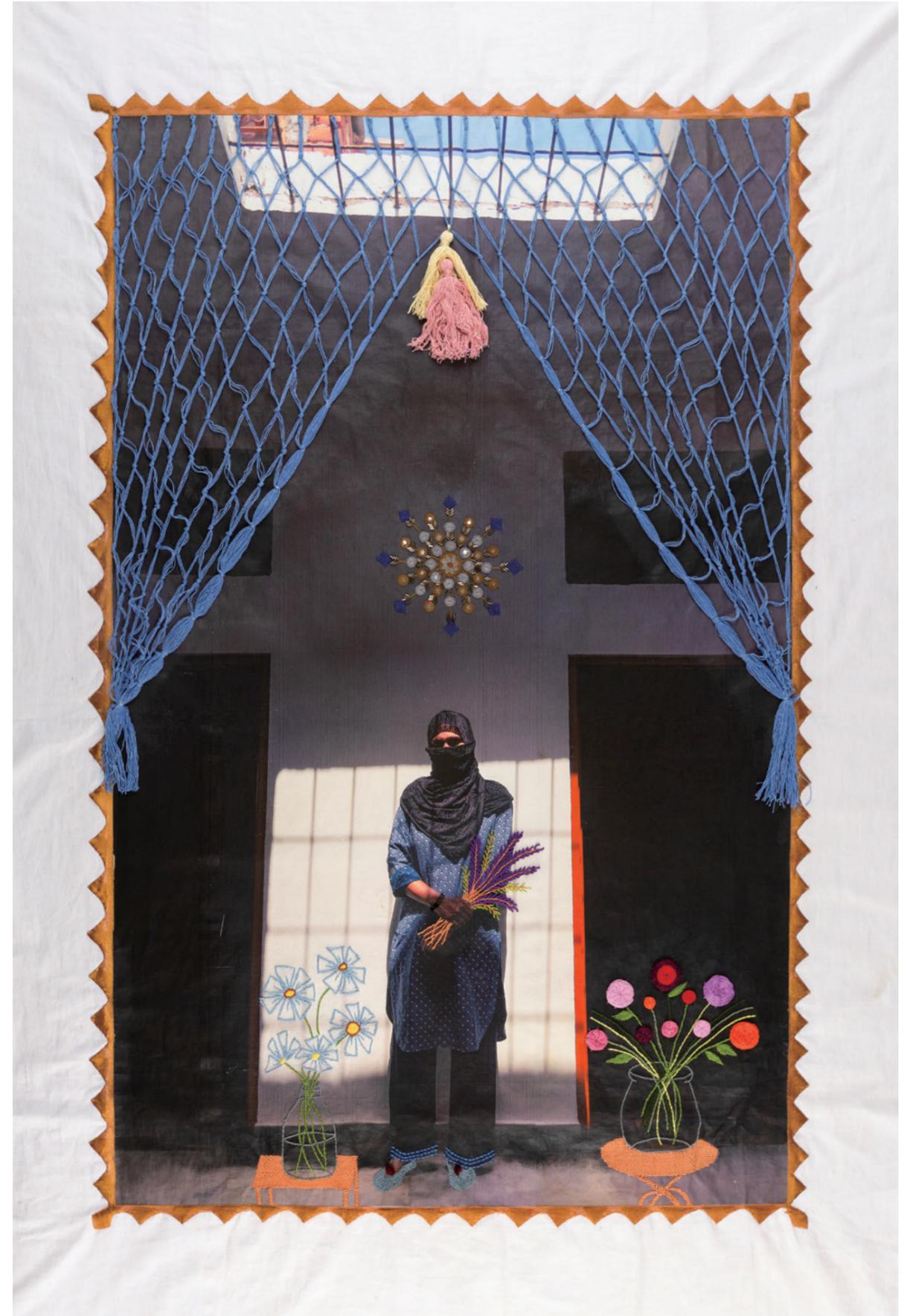
embroidered

여성과 함께, 여성을 위해. 자신의 사진이 담긴 천에 자유롭게 수를 놓는 인도 여성들이 건네는 무언의 대화.



photographer **SPANDITA MALIK**
editor **KIMSUN HEE**

여성, 아내, 그리고 희생. 산스크리트어 'Nári'의 의미다. 인도 출신 사진가 스판디타 말리크 (Spandita Malik)는 2019년부터 이를 제목으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그는 인도 곳곳을 다니며 경제활동을 위해 자수를 배운 여성들을 만났고, 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결과물을 인쇄한 천 위에 각 사진 속 여성은 자유로이 수를 놓았다. 사진과 자수가 어우러진 작품을 완성해가며, 스판디타 말리크는 인도의 여성 인권이 처한 현실을 마주했다.





인도를 여행하며 여성들을 만난 계기는 무엇인가? 3년 전 인도에서 성폭력 관련 연구를 하며 비영리단체와 협업하게 되었다. 그러다 성폭력과 가정 폭력 등으로 인한 아픔을 지닌 여성을 지원하고, 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자수를 가르쳐주는 기관들을 찾아가게 되었다. 리크나우, 자이푸르, 캄카우어 사히브 등을 여행하며 각 지역에 거주 중인 여성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고 그들과 인터뷰도 진행했다.

카메라를 들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나? 사진가의 시선이 피사체의 서사를 형성하는 방식. 뷰파인더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가 가진 권력에 대해 고민했다. 내가 각 여성의 진정성을 통제하지 않기를, 더 나아가 그들이 촬영에 주체적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래서 사진을 천에 인쇄한 뒤 각 여성에게 본인을 표현하는 자수를 놓아달라고 요청했다. 여성들이 어떠한 지침 없이 스스로를 묘사하며 직접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일종의 매개체를 제공한 거다. 사진이 '내가 당신을 이런 시선으로 본다는' 말을 전하면, 자수가 '이게 바로 나다'라고 대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결과물을 'Nári'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로 엮고 있다.

프로젝트에 함께한 여성들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 짐작하나? 상업적 공예의 영역 안에서 창조적 실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웠을

것 같다. 자신의 모습이 사진에 담기고, 그 위에 스스로 수를 놓는 작업은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과는 다른 일이니 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새로운 작업에 익숙해지면서 더 자유롭게 본인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천 종류는 어떻게 선정했나? 각 여성에게 원하는 천을 직접 선택하라고 했다. 가장 많은 여성이 고른 건 인도의 전통 물레 '샤르카(charka)'로 짠 '카디(khadi)'였다. 샤르카는 인도에서 자립을 상징한다. 영국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독립 운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인도인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샤르카를 돌렸다. 내가 만난 여성들이 카디에 수놓는 행위 또한 저항하는 힘을 만들어낸다고 믿는다.

사진과 자수가 어우러진, 여성들의 손길을 거쳐 완성된 작품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나? 이들의 훌륭한 자수 솜씨에 경외와 감사를 느꼈다. 다양한 개성을 지닌 작품이 탄생한 것도 인상 깊었다. 자수를 강조하기 위해 배경을 검은색 물감으로 칠하거나, 방의 벽면을 금색 실로 수놓는 등 작은 부분까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자수는 억압에 저항하기 위해 수 세기에 걸쳐 전해져온 일종의 언어다. 우리는 자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시대를 초월해 소통할 수 있는 자수의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인도에는 여성들이 지역 내에서 유명한 수공예를 가족 대대로 가르쳐주는 문화가 있다. 예를 들어 동인도에서는 꽃무늬 자수 '플카리(phulkari)'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어머니가 결혼을 앞둔 딸을 위해 꽃을 한가득 수놓은 천을 선물하는 것을 길한 일로 여긴다. 이런 식으로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딸에게 자수와 뜨개질 등을 알려주며 공예에 여러 세대의 이야기가 담긴다. 세대를 초월해 존재하는 공예가 친밀감을 형성한다고 생각한다.

자수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맞다. 우리 또한 각자의 작업을 하면서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서로를 도왔고,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지난 3년간 나와 함께해온 여성 공동체는 코로나19로 잠시 혼란의 시간을 겪은 적이 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메신저에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고, 다른 지역의 여성들을 더 초대하기 시작했다. 작업 재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온라인 공간은 점차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졌다. 공동체가 단단해질수록,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거라고 믿는다.

'Nári'는 여성과 아내, 회생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당신의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의미를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단어를 당신만의 관점으로 새롭게

정의한다면? 여성의 돌봄, 유대, 회복. 내 프로젝트에 함께한 여성들은 '타인의 고통'이라는 사적인 공간으로 들어가 서로를 살피며 생경한 소속감을 느꼈고,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었다.

예술가이자 여성으로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어떤 생각을 했나? 인도 여성들이 공유하는 경험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최근 이 프로젝트의 범위를 인도의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는 중이다. 그곳의 여성들에게 참바 루말(chamba rumal), 카시다카리(kashidakari), 칸타(kantha)와 같은 자수를 알려주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젠더 폭력을 막고 여성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낼 미래가 되기를 기대한다.

여성 인권을 위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은 어디에서 온다? 2012년 델리에서 한 여대생이 성폭력으로 세상을 떠났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후에 그곳으로 이주한 여성으로서 인도 여성들이 겪는 불공평과 불평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여성의 권리를 향한 정치적 분노의 결여는 내 예술의 원천이 되어준다. 앞으로도 꾸준히 여성과 함께 작업해나갈 것이다. **mc**



인도 여성들이 각자의 자수를 더하며 완성한, 여성의 권리를 위한 이야기를 아름답고 명징하게 전하는 작품.

“젠더 폭력을 막고 여성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낼 미래가 되기를 기대한다.”

